

계불과삼년(鷄不過三年), 둑은 삼년을 더 질르를 허문, 토종은, 이제 양종덜은 멍청헤그네 경안 허주마는, 하, 토종은 삼년을 더 질르를 허면은 사람으로 화 하는 수가 있어.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트망트망 있기 따문 삼년을 더 질르지 말라. 구불과칠년(狗不過七年), 개는 칠년을 더 질르를 허문 칠년을 더 질왕은 그것도 또 사름이 되어가지고 거세기 화하는 수가 있어. 옛날 그랬는다. 옛날 우리 한국에서 그말이 어떻헌 말이산다.

흔 사람이 큰 부재의 집의 둑을 벽머리를 질뢰, 요새 모양으로 둑을 질르는다. 그때엔 누게 벨반 사가도 안허곡 그자 사갈 사람 만약의 이심을 허면 풀아줌도 허곡 드러 잡아먹어부려. 잡아먹어부르는디, 둑이 삼년을 더 질르완, 흔 대여섯해 질른 둑도 잇곡, 거기 개도 여남은 해 질른 개도 잇주. 개가 이시니 장닭 귀신이 웨여가지고 나오라 가지고, 늙은 할으방이 웨어가지고, 개 보고

“너도 오래 살고, 나도 오래 살았으니 너허곡 나허고는 가근하다. 그러니, 주인놈이 괴악헌 놈이라. 내 자손을 많이 잡아먹어부리니까니 내가 억울하여 그러니 그 원수를 갚아야 허겠다.”고.

“그러믄 어떻 허쿠광?”

“이 주인 타 댕기는 물이 저 창문뚱에 메어졌지, 그러니 그것을 안장 지우라. 안장 지우를 허문 내 타거들랑 날랑 앞이 상(서서) 몰 익꺼그네 저 사굴(蛇窟)로 들어가, 사굴로 들어가 배엄 사는 굴로 들어가자.”

“그 배엄 사는 들어가믄 어떻헙니까?”

“거기 가져서 사왕안티 가 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 달라곤 해서, 어 가그네 허켜.”

“뱀이 어떻 허영 원수를 다 갚아?”

“그 뱀 대죽이 막 들어오물 허문 그 놈의 집이 막 에워싸그네 막 물어부리곡 허지 안허느냐.”

“겨믄 경험주.”

개가 이젠 사름이 되어가지고 허연 물안장을 지우고 몬 허니 그 놈의 둑은 장닭 귀신은 딱 나오란 영감이 되영 타 가전, 나 ?리치는대로만 글라.”

드려 그자 산중더레만 올라가. 가당보니 큰 어귀가 있어. 가당보니 배엄이 있었는디, 아 멍석부러기만이헌 배엄이 나오란 떡 있어.

“사왕님, 저 원수를 좀 갚아주십서허니 그 이 저녁 찾아온 바우다.”

“니 원수는 무슨 원수냐?”

“우리 주인놈이 괘씸스러워 가지고, 내 자손을 몬짝 잡아먹어부리니깐 내 하도 청원하여 가지 고 사왕님 전(前)에 오란 등장들엉 그놈의 집 막 멸종을 시켜줍센 영 오랐수다.”

“그려지.”

“그 부재로 살지?” 거기 삼해유지, 삼해유, 집어핀 삼해유가 있지 안 흐느냐?”

“삼해유(三亥油)가 뭣입니까?”

“일년이 해년 해월 해일에 빤 지름이 이시민 우리는 가지 못한다.”

“그 지름이 이시민 우리는 활동허질 못한다.”

허니.

“아, 그 지름 업수다.”

고 그러거든.

“내 계민 우리가 모릿날은 가겠다. 모릿날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. 그중 알라.”

“아, 그리 흐리다. 고맙수다.”

이젠 집에 돌아오란 그 집은 부재집이난 장남이 있었주. 그 장남이 ?바서 말 들으니까니 아
늙망에서 이거여, 저거여 말소리가 나. 어떻허난 둑이 늙망안에 사름이 무슨 사름이 신고 흐명
들어보니까니 그런 말을 개하고 서로 허듯이.

“모릿날은 사왕이 틀림없이 올게라 올게니까 우리가 잘 대접 헤여야지.”

흐명 허염거든. 하 이젠 그 장남이 주인?라 이 말을 골았거든.

“사실은 이만저만 흐연 허염수다.”

“아, 그러냐.”

고, 아 뒷날 아침은 보니 물이 막 땀으로 놓가져서. 아이고, 첨 물 탕 가 오랐구나게.

“아, 모릿날 전의 늙망을 일절 다 잠가부령 흐나 냉기질마랑 막 잡아불라.”고.

막 잡아부렷주. 막 잡양 먹지못허믄 댁겨 불기도 허곡. 막 잡아부련……. 삼해유 말을 그듸서
몬딱 그 개하고 이제 그 둑 하르방하고 삼해유만 이놈의 어승을 흐민 그 사왕이 들어오민 막 거
세기 아이 주인. 아 이젠 주인이 ?마니 생각해 보난. 삼해유가 장판이 밖엔 파는디가 어실거난.
뒷날랑 장판에 강 사오렌, 장남?라 삼해유를 사오랜 허연, 장판이 간 삼해유를 사단, 으잣에 막
뿌리를 허연. 뿌려놔두니 모릿날이엔 헌 날은 사왕이 오肯 헌 그날은 그밤에 배엄이 들어오는디.
막 그가 떼거지로 세상 천지 배엄은 막 들어오랐어. 막 들어오단, 삼해유를 뿌려 노니까니 그 독
을 맞황허니 몬딱 그자 울 바깟디레 배엄이 소못 머뭉지기과게 죽언. 뒷날 아침은 주인이 일어낭
보난 사름발 디딜틈이셔? 막 배엄이 죽언 거시기허연 몬 그때 경헨 뱜 치와난 말이주. 겨우네 계
불과삼년, 구불과칠년, 옛날엔 그 밖에 더 질르지 말랜 허엿주.

(成啓天, 男·83)